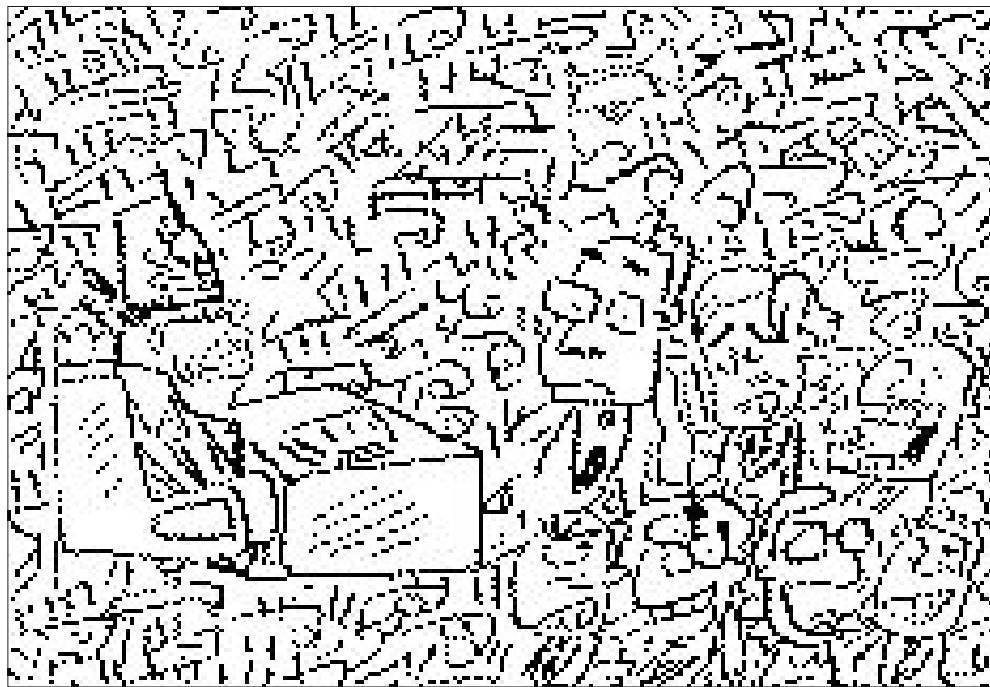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113 >



찾아(보)세(요) 열대어, 고추, 양주잔, 상어, 우산, 구두, 몽당연필, 종이배, 셔플록

이혼 승인

어느 가정 법원에 이혼장을 들고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판사 : "이혼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신부 : "남편이 코를 골기 때문입니다."

판사 :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

신부 : "5일 됐습니다."

판사는 끈이어 이쪽저쪽 서류를 뒤적이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사 : "이혼을 승인합니다. 신랑은 아직 신혼이고, 아직까지 코를 골며 잘 때가 아니기 때문에입니다. 코 골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정답

고추, 다리미, 열대어, 아이스크림, 만년필, 칫솔, 가지, 우유팩, 슬리퍼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백혜정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이현미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73년 '고교 평준화 정책' 발표



1960년대의 학생들은 이른바 '중3병'을 앓으며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일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전쟁을 치러야 했다.

'중학교 입시지옥', '고급 재수생'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고등학교 입시가 과열되자 정부는 1973년 2월 28일 무시험 추천 배정과 교육여건 평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3월 13일에 이를 확정하여, 1974년부터 서울과 부산지역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75년 대구·인천·광주,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등지로 평준화 지역이 확대돼, 현재 서울과 6대 광역시 전국의 20개 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등학교의 균질화, 과학 및 실업 교육의 진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학교 육성,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 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마련됐다. 지난 30여년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지

만, 여전히 '교육기회의 평등'과 '학생들의 하향 평준화'의 찬·반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교 평준화는 사회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평준화 지역의 확장과 축소 및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아 지자 정부는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했다. 특목고는 평준화 보완책과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돼, 1980년 7·30 교육 개혁안을 통해 과학계열이 특목고에 포함된다. 1992년에는 어학영재를 기르기 위한 외국어 고등학교가 특목고로 지정됐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 특목고 입학이 명문 대학 합격에 위한 지름길로 여겨지면서 또 다른 '입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처음 논의됐다. 2001년에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 등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보석관리법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높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시에는 중성세제를 묻혀 끓는 물에 5분정도 담가둔 뒤 부드러운 칫솔로 때를 벗겨주세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닦아내고 부드러운 천이나 세무로 닦아주면 광이 납니다.

▲사파이어
사파이어도 경도가 높은 보석으로 비교적 흠이 쉽게 생기기 않으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성세제를 푼 35도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터는 것처럼 문질러서 때를 제거하세요.

▲루비
루비는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세팅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척시 소량의 중성세제를 녹인 물에 담고 칫솔로 가볍게 터는 것처럼 문질러서 때를 제거하세요. 물에 잘 헹군 뒤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2월 27일(음 1월 21일 丁酉)

36년丙子생 수리대로 행동하면 결과도 좋으리라. 48년戊戌생 호랑이에게 개 꾸어주는 격이다. 60년庚子생 미운사람이 나타난다. 72년壬子생 협력자가 나타나지만 도음은 못준다. 84년甲子생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행운의 숫자: 12,43

37년丁丑생 오래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다. 49년己丑생 놀랄 만한 일이 생기나 좋은 일이다. 61년辛丑생 결박기와는 다르게 일이 쉽지 않다. 73년癸丑생 옛 감정은 잊고 화해하면 좋으리라. 85년乙丑생 불평사가 생기나 곧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13,34

38년戊寅생 남녀사이에서 구슬투로 명예에 흠집이 날까 무섭다. 50년庚寅생 인생의 후반전 계획이 중요하다. 62년壬寅생 부자지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니 기회를 만들라. 74년甲寅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니 예정을 놓치지 마라. 행운의 숫자: 19,30

39년己卯생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살펴라. 51년辛卯생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63년癸卯생 이는 길도 물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손실이 없으리라. 75년乙卯생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 행운의 숫자: 20,29

40년庚辰생 문서상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다. 52년壬辰생 직장에서는 행동을 잡어서는 말을 조심하라. 64년甲辰생 처음에는 어려웠던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6년丙辰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벗을 내보라. 행운의 숫자: 25,35

41년辛巳생 잘못된 옛 일이 자신을 괴롭히는 하루가 된다. 53년癸巳생 과도한 욕심이 없는 한 평안하다. 65년乙巳생 친한 사이에 새로운 사업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77년丁巳생 눈물보다는 웃음이 얼굴에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20,45

42년戊午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하라. 54년庚午생 너무 자신의 재주를 믿지 말고 준비하라. 66년丙午생 힘 줄때와 힘 뺏 시기를 놓치지 마라. 78년戊午생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 행운의 숫자: 11,39

43년未未생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가려야 한다. 55년乙未생 아들 딸과 대화를 하고 고민을 물어보라. 67년丁未생 부부사이에 의무를 다하면 이별은 없으리라. 79년己未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경운하다. 행운의 숫자: 01,41

44년庚申생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56년丙申생 보고 싶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싶은 사람만 보인다. 68년戊申생 바쁜 하루가 된다. 80년庚申생 애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마음을 정해 먹으라. 행운의 숫자: 16,37

45년乙酉생 작은 병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57년丁酉생 절대 본수를 지켜야 화가 작아지리라. 69년己酉생 자신의 인생설계에 변화가 온다. 81년辛酉생 숙련은금물이나 여유 있게 생각하면 오히려 큰 득이 있다. 행운의 숫자: 32,41

46년丙戌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했던 일들이 잘 풀려간다. 58년戊戌생 시간은 지루하나 뜻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70년庚戌생 이상으로 마음이 헛갈리니 중상을 찾아라. 82년壬戌생 울고 싶은 일이 생기나 어려운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11,21

47년丁亥생 모르는 사람과 시바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59년己亥생 성수술 시비 송사 등등 모든 것은 자신의 행동이 원인이다. 71년辛亥생 자신의 입으로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83년癸亥생 욕심을 버리고 자중하라. 행운의 숫자: 31,33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Go board game diagram showing a game in progress with numbered stones and a '참고도' (reference diagram) on the right.

고난을 자초한 전투 5보(49~57)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종길 5단 (광유회)

흑의 주 문은 '참고도'의 백 1로 나가 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흑 2 이하 10까지 완 벽하게 봉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혼자만의 달콤한 생각이다. 기용성 5단이 이 그림을 단호히 거부하고 백 3로 찢혀 오자 이곳에서부터 대풍운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흑 49로 끊고 51로 몰아 백 돌을 무겁게 만든 것은 당연하

바둑소식

박정상 명인전 결승리그 첫승

박정상 9단이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본선 경기에서 첫 승을 따냈다. 박정상은 26일 서울시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최명훈 9단을 맞아 182수 끝에 백불계승을 거뒀다. 본선은 이세돌·조한승·목진석 9단이 시드를 받아 출전하고 조훈현·이창호·최명훈·박정상·원성진 9단, 강동윤 7단, 최원용 5단이 예선을 통과해 진출했다. 한국랭킹 10위권의 기사 중 박정상은 3회이름 본선 진출자 10명의 풀리드 3회 경기를 벌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05>

you can't play football until you eat dinner
넌 저녁을 먹을 때까지 공을 찰 수 없어!
A: I'm going to play football.
B: We're about to eat.
A: I'm not hungry.
B: Sorry, but you can't play football until you eat dinner.
A: 저는 공 차려 갈 거예요.
B: 우리 곧 밥 먹을 건데.
A: 배고프지 않아요.
B: 안됐지만 넌 저녁을 먹을 때까지 공을 찰 수 없어!
* be going to ~ : ~하러 갈 거예요.
* be about ~ : 곧 ~할 거다
* 방 청소 마칠 때까지는, 점심밥 없다.
= You can't get any lunch until you clean your room.
* 머리 손질 마칠 때까지는, 넌 쇼핑몰에 갈 수 없어!
= You can't go to the mall until you fix your hair.

오하오우 니혼고 <1105>

完全(かんぜん)におたくぞくだね
완전히 오타쿠쪽이군
A: まだ漫画(まんが)讀(よ)んでる。そんなに面白(おもしろ)いの?
B: こんなに面白(おもしろ)いものないね。同好會(どうこうかい)にも入(はい)ってるしいろんなキャラクタ商品(しょうひん)を集(あつ)めてるんだ。
A: すごいね。サイトウさん完全(かんぜん)におたくぞくだね。
B: それほどじゃないけど今(いま)、はまってるんだ。
A: 또 만화를 읽고 있네. 그렇게 재미있어?
B: 이렇게 재미있는 것 없어. 동호회에 들어갔고,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을 모으고 있어.
A: 대단하군. 사이트우씨는 완전히 오타쿠쪽이군.
B: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빠졌어.
キャラクタ商品(しょうひん): 캐릭터 상품
集(あつ)める: 모으다
おたくぞく: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방 안에서 게임이나 그밖의 다른 취미활동에 몰입하는 사람.

니하오 쑹구위 <82>

我正在上网呢,
나 인터넷 하고 있어
A: 你在做什么?
你正在做什么?
B: 我正在上网呢?
我正在上网呢?
A: 你的笔记本又小又薄, 新买的?
你的笔记本又小又薄, 新买的?
B: 是.
A: 네 뭐하고 있어?
B: 인터넷하고 있어.
A: 네 노트북은 작고 얇네, 새로 산거야?
B: 응
上网 [shàngwǎng] 인터넷을 하다
笔记本 [bǐjìběn] 노트북

한자 이야기 <692>

舍利(사리)
집사, 이로올리
사리(舍利)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신체를 뜻하는 'sarira'를 음역하여 설리(設利羅)라고 하다가 줄여서 된 말이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다비(荼毘)한 뒤에 나온 구슬 모양의 물질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나아가 고승(高僧)의 유골(遺骨)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한다.
사리가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사리를 참된 수행의 결과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통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리를 봉안(奉安)하기 위해 세워진 탑이 탑(塔)이다. 그 중에서 고승의 사리를 봉안하는 탑만을 부도(浮屠)라고 일컬으며 절의 초입에 설치하였다. 본래 탑은 사리를 봉안한 건축물이었는데, 지금은 사리가 없어도 사람의 금당, 즉 본전 앞에 세운 건축물이면 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신(屍身) 그 자체는 전신사리(全身舍利)라고 하고, 다비(荼毘)한 뒤의 신골(身骨)을 쇠신사리(碎身舍利)라고 부른다. 더욱 세분하여 부처님의 신골인 경우는 진신사리(眞身舍利)라고 하고, 불경(佛經)인 경우는 법사리(法舍利), 그리고 고승의 신골인 경우는 승사리(僧舍利)라고 부르고 있다. 불보살(佛寶刹)로 유명한 양산의 통도사에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어 있다.
<한여원(韓喜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